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성경의 번역과 편집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4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34장(앞뒤 장 번호로 추정) '성경의 번역과 편집', 약 385~390쪽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33장의 결론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을 손으로 베껴 쓰는 과정에는 실수가 끼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수단으로 쓰십니다. 이 장은 같은 논리를 번역과 편집에 적용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의 말로 '옮기는' 가장 큰 번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번역 때문에 말씀의 권위가 줄어든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어 바벨에서 오순절, 지상명령까지 따라가며, 번역은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이라는 본성에서 나온다고 밝힙니다. 그다음 번역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불완전한 번역 역시 원래 의미를 전하는 만큼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이라고 결론짓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역과 의역, 주석이 달린 성경을 어떻게 볼지 실제적인 조언을 줍니다.

📜 절별 정리

📜 1. 33장에서 34장으로: 전달 과정의 다음 고리

프레임은 33장에서 원본 성경이 오늘의 독자에게 오기까지 거치는 단계들을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가운데 필경과 본문 비평을 먼저 다뤘습니다. 필경은 성경을 손으로 베껴 쓰는 일이고, 본문 비평은 여러 사본을 견주어 원래 본문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그 장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베껴 쓰는 과정에는 오류가 끼어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당신의 권위 있는 인격적 말씀을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이것들도 말씀을 전하기에 알맞은 수단이라는 것이 이 장의 출발점입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당신 뜻대로 붙드시고 이끄시는 일을 말합니다.

1. 원본에서 독자까지 여러 단계를 거친다
2. 필경처럼 번역·편집에도 실수가 낀다
3. 그래도 섭리 속에서 쓰이는 수단이다
4. 이 장은 33장 논리의 확장이다

> **(이 절에는 직접 인용한 구절 없음)**
> 33장(필경·본문 비평)의 결론을 이어받는 도입부

📜 2. 첫 번째 번역자는 하나님이시다

프레임은 번역을 넓은 시야에서 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는 8~1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스림·권위·임재라는 주권적 속성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본성과 영원한 생각 그 자체로 보면, 사람의 언어로는 그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성부·성자·성령께서 영원히 서로 나누시는 언어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은 귀로 들어 본 적 없는 언어입니다(고린도전서 2:9).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14장)에도, 그것은 언제나 당신의 영원한 생각을 사람의 말로 '옮기시는' 일, 곧 번역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히브리어로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의 말로 옮겨진 말씀이 왜곡되었다고 어디서도 암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은 하나님의 궁극적 권위를 지니며, 불오하고 무오합니다.

1. 말씀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다
2. 삼위 하나님의 언어는 사람이 못 듣는다
3.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늘 '옮김'이다
4. 그 옮김은 말씀을 비틀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2:9

삼위 하나님이 나누시는 언어는 사람의 귀가 들어 본 적 없는 것임을 보여 줌

>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 함과 같으니라

출애굽기 20:1-2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자신을 밝히신 장면 —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언어로 옮겨진 실례

> 1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 3. 성경 안의 번역: 성경은 번역을 문제 삼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각을 사람의 말로 옮기는 일에 비하면, 다른 번역은 쉬운 일이라고 프레임은 말합니다. 언어가 변하는 속도를 생각하면, 모세가 쓴 히브리어는 원저작과 오늘 우리가 가진 사본 사이에서 꽤 많이 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말을 시대에 맞게 다듬는 편집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과정을 언급하지 않고, 번역 과정에 교리적이거나 구원 역사적인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아람어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다만 프레임은 각주에서 이것이 확실하지는 않으며, 예수님이 히브리어와 당시 공용어인 코이네 헬라어도 아셨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런데 신약 본문은 이런 언어 사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더 분명한 증거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구약의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을 자주 인용했고, 번역본이라서 문제라는 암시는 전혀 없습니다. 인용이 원문의 뜻을 되살리는 만큼, 원문의 권위도 함께 되살아납니다. 다만 신약 저자들은 70인역이라는 번역본 자체에 권위를 주려 한 것이 아닙니다. 원문을 인용하는 도구로 70인역을 쓴 것입니다.

1. 모세의 말도 시대에 맞게 다듬어졌을 것
2. 성경은 번역 과정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

4. 뜻을 되살리면 권위도 되살아난다
5. 70인역이 아니라 원문을 인용한 것이다

> **(이 절에는 직접 인용한 구절 없음)**
> 신약의 70인역 인용 사례는 33장에서 다뤘다고 밝히고 그 결론을 가져옴

📜 4. 바벨에서 오순절로: 번역은 복음의 본성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세상에 언어가 여럿인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창세기 11:1-9). 노아의 후손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도시를 세웠고, 아마도 하늘에 닿으려고 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거스르고 한곳에 머물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나누시자 사람들은 흩어졌고, 그 뒤로 언어의 차이는 인류가 하나 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그분이 언어를 나누셨으니 넘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언어로 말씀하시든 능력과 권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오순절에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언어로 복음을 들은 일은 바벨의 저주를 부분적으로 되돌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온 세상을 향했습니다. 그 목적은 아담에게 주신 명령,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약이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로 쓰인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역사 내내 성경을 모든 언어로 옮기려 애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역은 실용적 필요를 넘어,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의 본성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번역에 대한 기본 태도는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1. 언어가 여럿인 것은 바벨의 심판이다
2. 하나님께 언어 차이는 장애가 아니다
3. 오순절은 바벨을 부분적으로 되돌렸다
4.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온 세상이다
5. 번역은 복음의 본성에서 나온다

> **창세기 11:1-9**

[1]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2]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3]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5]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

창세기 11:4

바벨 사람들의 동기 —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려 함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창세기 1:28

땅에 충만하라는 창조 명령 — 바벨은 이를 거스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9:1

노아에게 다시 주신 같은 명령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도행전 2:1-2

오순절 — 각자 자기 언어로 복음을 들음, 바벨의 부분적 반전

[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는 약속 — 하나님의 세계적 목적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마태복음 28:19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지상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요한계시록 14:6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을 향한 복음 — 번역이 복음의 본성임을 보여 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슬람교와 다르게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될 수 없다고 믿지 않는다."

📜 5. 번역의 한계: 잃는 것도 있다

프레임은 번역 과정에서 내용이 빠질 수 있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문'을 뜻하는 헬라어 '뒤라'(thura)는 영어의 'door'와 거의 똑같이 쓰입니다. 그는 깊이 연구하지는 않았다고 단서를 달면서도, 비유적인 쓰임까지 비슷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언어마다 일대일로 맞출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를 넘어 구, 문장, 문서 전체로 가면 문제는 더 많아집니다. 단어 그대로 옮길 수 없는 관용어도 있고, 그것을 풀어 쓰려다가 새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어 수준을 넘어 원문의 뜻을 다른 언어로 완벽하게 재현하기는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뉘앙스나 강조점, 연상되는 느낌에서 늘

각주에서 하나를 덧붙입니다. 영어 번역본이 끝없이 쏟아지는 것은 꼭 필요해서라기보다 돈이 되기 때문인 것 같다고 꼬집습니다. 그리고 번역이 정말 필요한 언어권에 언어학자들이 더 가기를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1. 번역에서 내용이 빠질 수 있다
2. 일대일로 맞는 단어도 있다(thura=door)
3. 관용어·뉘앙스는 완벽히 옮기기 어렵다
4. 협력해서 더 나은 번역을 만들어야 한다
5. 언어가 변하니 번역도 계속 고쳐야 한다

> **(이 절에는 직접 인용한 구절 없음)**
> 언어학적 관찰과 실제 사례(헬라어 thura)로 논증

📜 6. 불완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도 프레임은 불완전한 번역 역시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을 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거는 33장의 논리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원본이 아니라 사본으로 구약을 인용했습니다. 오류가 섞인 사본을 인용해도, 실제로는 원저자가 쓴 원문을 인용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70인역을 인용한 것도 같은 논리로 설명됩니다. 번역본이 원본과 어떤 면에서 다르더라도, 그 차이가 인용 자체를 무효로 만들 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본문상의 난점이 사소해서 교회의 교리를 무너뜨리지 않듯, 번역상의 난점도 그렇습니다. 프레임은 가장 형편없는 번역에도 기본 복음은 들어 있고, 이단의 번역조차 복음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가장 좋은 번역은 불완전해도 원본의 의미를 거의 다 담아내므로, 그것을 인용하면 원문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구절에는 번역 문제가 아예 없습니다. 어떤 구절에 문제가 있더라도, 성경은 같은 주제를 여러 번 되풀이하므로(18장, 33장) 문제없는 다른 구절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1. 불완전한 번역도 말씀을 전할 수 있다
2. 사본·70인역 인용과 같은 원리다

4. 최악의 번역에도 기본 복음은 있다
5. 성경의 반복이 난점을 보완해 준다

> **(이 절에는 직접 인용한 구절 없음)**
>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본·70인역 인용(33장)을 근거로 삼음

"불완전한 번역도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을 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 7. 어떤 번역본을 읽을까: 직역과 의역

"어떤 번역본을 써야 하나요?"라는 질문은 쉽지 않습니다. 번역본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어와 단어 단위로 맞추는 번역이 있습니다. ASV, NAS, 더 극단적으로는 원어 단어 밑에 영어를 적어 넣은 행간 번역이 그렇습니다. 이런 번역은 읽기 쉬움을 어느 정도 포기합니다. 반대로 NIV나 NLT는 단어 일치를 포기하는 대신 읽기 쉬움을 택합니다. 직역은 원어를 배우는 사람에게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원어 단어와 비교하기 쉽고, 원문의 문장 구조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원어 단어를 되도록 같은 말로 옮기기 때문에 구절 사이의 연결이 잘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직역은 뜻을 잘 전하지 못합니다. 뜻을 전하는 것이 번역의 핵심입니다. 이상적인 번역은 원문의 내용을 모두 담으면서 그 언어 사용자가 실제로 쓰는 말투로 옮긴 것이겠지만, 두 목표를 다 이루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프레임은 신학을 가르칠 때는 ESV가 좋은 절충안이라고 봅니다. 아이나 청소년, 방언 사용자를 가르칠 때는 다른 번역이 나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번역과 의역의 경계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의역도 결국 더 잘 소통하려는 시도이므로, 직역만 성경의 뜻을 담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역과 의역은 서로 다른 종류의 의미를 전할 뿐입니다.

1. 번역본마다 목적이 다르다
2. 직역: 원어 비교·구절 연결에 강하다
3. 의역: 읽기 쉽고 뜻이 잘 전달된다

5. 직역과 의역은 다른 종류의 의미를 전한다

> **(이 절에는 직접 인용한 구절 없음)**
> 번역본 비교(ASV·NAS·KJV·NIV·NLT·ESV)를 통한 실제적 조언

📜 8. 편집: 주석·관주·지도와 스터디 바이블

번역본이 성경의 의미를 전한다면, 그것은 원저자가 쓴 원문의 의미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범위만큼 우리는 번역본을 하나님이 주시는 인격적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석, 지도, 관주(관련 구절 표시) 같은 도움 자료가 붙은 성경 출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경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본문과, 사람의 권위만 가진 편집상의 덧붙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도 덧붙임은 대체로 유익합니다. 그 쓸모는 무엇을 위해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변증용 스터디 바이블이나 생활 적용 성경처럼, 서로 다른 교리 전통과 목적에 맞춘 성경이 나옵니다. 이런 주석은 본문만 읽어서는 깨닫기 어려운 성경의 진리를 일부 독자에게 전해 줍니다. 이렇게 번역본과 거기 딸린 도움 자료는 원문을 더 잘 알게 해 줍니다.

1. 번역본은 원문의 의미를 전하는 만큼 말씀이다
2. 주석·지도·관주 달린 성경도 마찬가지다
3. 영감된 본문과 사람의 주석을 구분하라
4. 주석은 목적에 따라 유익하게 쓰인다

> **(이 절에는 직접 인용한 구절 없음)**
> 스터디 바이블 등 출판 현실에 대한 실제적 조언

⚖️ 오해와 반론

📖 용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당신 뜻대로 붙드시고 이끄시는 일.

인격적 말씀
프레임의 핵심 개념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직접 다스리시고 권위 있게 말씀하시며 함께하신다는 뜻.

불오(infallible)
속이거나 그릇 이끌 수 없다는 뜻.

무오(inerrant)
실제로 틀린 내용이 없다는 뜻.

저자 친필 원문(자필본)
성경 저자가 처음 쓴 원본으로, 지금은 남아 있지 않고 사본만 전해진다.

필경·본문 비평
필경은 손으로 베껴 쓰기, 본문 비평은 사본들을 비교해 원래 본문을 찾는 작업.

70인역
예수님 이전에 히브리어 구약을 헬라어로 옮긴 번역으로, 신약 저자들이 자주 인용했다.

코이네 헬라어
신약 시대 지중해 세계에서 널리 쓰인 공용 헬라어로, 신약이 이 언어로 쓰였다.

축어적 번역(직역)
원어 단어 하나하나에 맞춰 옮기는 번역.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원어 단어 밑에 번역어를 적는 '행간 번역'.

대상 언어
번역해서 옮겨 넣는 언어(예: 헬라어를 한국어로 옮기면 한국어).

🔗 **다른 책과 닿는 곳** ⌄

✅ 이 장의 결론

- 번역과 편집은 실수가 낄 수 있는 사람의 일이지만, 섭리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알맞은 수단입니다.
-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일 자체가 가장 큰 번역이며, 그 말씀은 왜곡 없이 불오하고 무오합니다.
- 언어의 다양성은 바벨의 심판이지만, 오순절과 지상명령이 보여 주듯 번역은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의 본성입니다.
- 번역은 늘 불완전하지만, 원문의 의미를 전하는 범위만큼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 직역과 의역, 주석 달린 성경은 목적에 따라 쓰되, 영감된 본문과 사람의 덧붙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19편 · 원본은 없는데 무엇을 믿나 · 보존, 사본, 번역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